

한 발 나서면 볼거리, 즐길거리 천지

추석 명절을 맞아 푸집한 문화 상차림이 마련됐다. 5일 정식 개막한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인기 만점인 대인 예술 야시장, 전남도립국악단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20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관객들을 만난다. '터전을 불태워라'를 주제로 모두 38개국 103개 팀(작가)들이 참여해 111개의 주제로 41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평면화,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함께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608-4114.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전도 놓치기 아까운 전시다. '달콤한 미술'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 중이며 루신과 케테 콜비치의 목판화 등 인상적인 작품이 많다. 문의 062-613-7100.

최근 KBS 프로그램 '다큐 3일'에 소개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대인 예술 야시장 '별장' 행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대인 시장 곳곳에서 밤 12시까지 이어진다.

야시장에 가면 살 것, 먹을 것, 구경할 것이 가득하다. 일반 시민들이 셀러로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시장 상인들 역시 푸집한 먹거리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별장'에서는 상인과 시민 셀러가 협업으로 함께 준비한 제품들도 만날 수 있다. 시장 내 작가들의 참여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한평갤러리에서는 김자이, 박화연, 설박, 양나희, 양윤희, 엄기준 등 총 6명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유유자적'전을 진행중이다. 또 대인예술시장 창작스튜디오 '다다'가 지난날 공식 오픈하면서 볼거리가 더 많아졌다.

그밖에 박문종 작가의 '농사 퍼포먼스 시리즈'와 '크리에이티브 배장이'의 하우스 콘서트, 인디 밴드들의 공연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같은 기간 대인시장 문화관광행 시장 육성사업

단은 추석맞이 특별 '대인 야(夜)멀이 시장'을 진행한다.

특별 공개 방송 '더 가까운 시장 라디오', '특별 야멀이 경매', '특별 전라도말 대회', '아카펠라 특별 공연', '야멀이 어린이 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말에는 대인시장 라디오 방송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상인들이 직접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문의 062-233-1420.

전남도립국악단은 6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추석맞이 특별 토요공연 '한가위만 같아라'를 연다.

38개국 작가의 '미술 큰 잔치' 광주비엔날레와 20주년 기념전

상인·시민·작가들 협업 대인 예술 야시장 '별장' 볼거리 풍성

전남지역 곳곳 팝·재즈서 국악·가야금·창극까지 공연 무대

'국악 세대공감 프로젝트' 일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팝뮤직 중 사랑을 주제로 한 명곡을 국악기로 들어보고 국악의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6일 오전 11시 진도 윤림산방 내 토요일경매장에서는 '추석맞이 이웃사랑 그림경매'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국전 입·특선 수상 경력 등을 지닌 전남 미술인들의 우수한 작품들의 경매 시작가를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선보이고 진도 윤림예술인촌의 '일씨구 한마당' 풍물 굿 공연과 서화 그리기 체험, 투호·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문의 061-280-5812.

전통문화관은 6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한국재즈협회 광주시지회의 '재즈와 국악의 만남' 무대를 마련하고 올드팝 'My way', 'What a won-

derful', 'hello dolly'와 대금연주 '장녹수', '조각배', '회화포'와 '민요메들리' 등을 들려준다.

7일 같은 시간에는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를 초청, 가족체험형 창극공연 '뽀뽀한 Fun소리'를 선보인다. 12현가야금과 25현가야금의 '아리랑연곡'을 시작으로 세계명작동화 '인어공주'를 21세기형 인어공주로 재구성한 단막창극 '인어공주 재판국', 창극체험 '춘향가'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232-1501~2.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은 8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악당에서 기악합주 '태평소와 관현악',

가야금 '아리랑 연곡' 등을 선사하는 공연을 개최한다. 문의 061-540-4031.

이주여성들이 한국과 자국의 명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2014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와 (사)아시아와국인근로자센터는 7일 광산구 평동 월전공원에서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추석 한마당 잔치를 개최한다.

'문화의 날 유랑단' 행사 중 하나로 전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이주민 8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캄보디아 전통 의상 패션쇼와 댄스 등이 펼쳐지며 문화유랑단의 공연도 펼쳐진다. 문의 062-457-1995.

또 8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고려인가족 한마당 행사도 펼쳐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2014광주비엔날레 2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가 작가의 '아우성', '이불 프로젝트' 등을 모아놓은 작품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타악뮤지션 '신명'의 '타' 공연 모습.



굴렁쇠 굴리기.

팽이 치고 제기 차고... 민속놀이 즐기러 오세요

지역 박물관들 전통 민속문화 한마당...송편 만들기 등 이색 체험행사도

굴렁쇠 굴리기, 옷놀이, 제기차기...

지역 박물관들이 추석을 맞아 다양한 민속행사를 마련했다. 또 영화 상영, 마술쇼, 퓨전 국악 콘서트 등도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한가위 우리 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내내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전통문양 색칠하기 행사가 진행되며 매일 색다를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6일에는 우리에게 굴렁쇠로 알려진 놀이 기구의 원형을 복원하는 '도룡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7일과 8일에는 강강술래, 소싸움, 씨름 등을 목판으로 찍어보는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9일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마술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4시 교육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엘비스 매직 극장'에는 당일 어린이와 보호자 300명(선착순)이 참가할 수

있다. 그밖에 매일 대강당에서는 '슈퍼배드2', '주먹왕 랄프', '화이트 고릴라' 등 아이들이 좋아할 어린이 영화를 상영한다. 문의 062-570-7012.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6일부터 9일까지 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전통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갖는다. 팽이치기, 널뛰기, 굴렁쇠 굴리기, 대형 옷놀이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 6일 오후 2시 이벤트홀에서는 국악그룹 '미지'를 초청, 퓨전국악 콘서트를 진행한다. 문의 061-330-7800.

광주시립박물관도 6~10일까지 박물관 야외마당에서 '2014 한가위 민속문화 한마당'을 운영한다. 6일에는 딱지 만들고 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을 진행하며 8일과 9일에는 송편 만들기과 보름달 속 방아 찧는 토끼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9일에는 호랑이춤, 탈춤,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공연 무대를 마련했다. 문의 062-613-5363.

/김미은기자 mekim@



목판 체험.

중우하나린 선착순임대

올전세 1억1천만원

즉시
입주

단일
세대

준공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101m² 빌라
2세대 당 15인승 엘리베이터 운영

천혜의 마지막 주거환경

시내 접근성 최고

남구지석동 혁신도시 메인간선도로

주요시설 어디든지 15분대 접근



임대문의 062

385-9010

위치 : 지석동 한일베라체 앞